

# 사드 배치의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 구조방정식모형의 활용 -

## Determinants of Public Acceptance in the THAAD Deployment by Structural Equation Model

하 혜 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공공문제연구소 겸임연구원 - 주저자)  
우 남 규 (경북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공동저자)  
석 상 우 (경북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교신저자)

### *Abstract*

Hyue-Su Ha / Nam-Kyu Woo / Sang-Woo Seo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determinants of public acceptance through the survey of SungJu county residents who have been suffered from the THAAD deployment.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 of interests, conceptual frame, hard feelings on public acceptance through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ed that interests, conceptual frame, and hard feelings have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public acceptance, especially hard feelings embedded in Korean culture have the most negative effect on acceptance. In theoretical aspects, the paper suggests that Western acceptance theories need to consider the hard feelings embedded in Korean culture as well as the value, personal beliefs, and interests. In practical aspects, the paper also proposes that Korean government should switch its focus from compensation for regional loss and trust building with residents to the dissolution of hard feeling such as individual resentment and anger in siting the hazardous public facilities.

Keywords: THAAD Deployment, Public Acceptance, Hard Feeling

## I. 서론

국책사업의 추진에 대한 지역과 주민들은 양극단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호시설의 입지에 대해서는 과도한 유치경쟁을 펼치는 반면, 지역에 피해나 위험을 초래하는 회피시설의 입지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역과 주민의 극단적 반대 때문에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의 설치가 좌절되거나 매우 높은 거래비용을 치르

기도 한다. 성주 사드 배치도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필요하지만, 지역과 주민의 반대에 직면하여 차질을 빚었을 뿐만 아니라 분쟁의 재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선호시설과 회피시설 등 국책사업의 추진에서 지역과 주민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성주 사드 배치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론적으로 수용성(public acceptance)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우선,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수용하고 손해가 되는 것은 수용하지 않는다. 협상이론에서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해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는 것도 이 때문이다. 둘째, VBN 이론에서는 가치, 신념, 규범이 수용성을 좌우한다고 주장한다. 즉 어떤 것을 수용하는 이유는 중요성과 가치(value) 때문일 수도 있고, 개인적 신념(personal belief) 때문일 수도 있으며, 사회적 규범(social norm)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 프레임 이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지적 편향 때문에 어떤 것을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감정적인 요인이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떤 대상에 대한 호감, 불쾌감, 혐오감 등에 따라 수용성이 달라질 수 있고,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 수용 여부가 좌우될 수도 있다.

이러한 요인들과 함께 우리나라에 특유한 가슴의 한이나 응어리와 같은 요인이 수용을 좌우할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정부(관료)에 의한 억압과 착취의 축적으로 인해 가슴에 한과 응어리가 쌓인 경우 국가안보의 중요성, 개인과 지역의 경제적 이득, 그리고 개인적 신념과 도덕적 의무감에도 불구하고 사드와 같은 군사시설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과 응어리는 감정적 요소와 관련되지만 일시적인 호불호 감정이 아니라 수탈과 착취의 축적에 의해 생긴 것으로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응어리는 인식틀과도 관련되지만 가슴(마음)에 응어리진 요인이라는 점에서 인지적 편향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성주 사드 배치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며, 특히 기존의 이론에서 강조한 이해관계와 인식틀에 더하여 한국적 특수요인인 한(응어리)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해관계, 인식틀, 응어리가 사드 배치의 수용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성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수용성 관련 이론

수용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이론은 VBN 이론, 프레임 이론, 협상이론, 한의 관점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VBN 이론은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순차적 요인을 강조한다. 즉 VBN(Value-Belief-Norm) 이론은 가치(value), 개인적인 신념(belief), 그리고 규범(norm)이 순차적 인과성을 가지고 수용성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Stern(2000)은 가치(이기주의, 이타주의, 생태중심주의), 신념(세계관, 책임감), 규범(도덕적 의무감)의 순차적 인과관계에 의해 수용성이 결정된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VBN 이론에 따르면 도덕적 의무감(규범)이 수용성(친환경적 행태)을 결정하고, 신념이 도덕적 의무감을 결정하며, 그리고 가치가 신념을 결정하는 순차적 인과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가치와 신념이 수용성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고, 감정적 요인이 수용성에 미치는 효과를 간과하였다.

둘째, 프레임이론(frame theory)은 인식들의 형성과 전환 과정에 관한 이론으로서(Kaufman, et al, 2003; Chong & Druckman, 2007; Putnam & Holmer, 1992) 기존의 프레임이 유지, 수정, 대체되는 과정을 통해 특정 대안의 수용 여부가 좌우된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인식틀 유형 중에서 특성부여 프레임, 정체성 프레임, 그리고 준거점 프레임이 수용성과 관련성이 높다. 첫째, 특성부여 프레임(characterization frame)은 상대방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것으로 상대를 극도로 불신하거나 부정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경우 수용성이 낮아질 것이다. 둘째, 정체성 프레임(identity frame)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서 상대방이 자기의 존재감과 집단소속감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할 경우 수용성이 떨어진다. 셋째, 준거점 프레임(reference point frame)은 이득과 손실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손실프레임을 이득프레임으로 전환하면 당사자의 위협선호가 줄어들고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인식틀이 수용성에 미치는 독립 변수라는 사실을 강조한 경험적 연구는 심준섭·김지수(2015)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위협 프레임이 강화될수록, 이익 프레임이 약화될수록, 정체성 프레임이 강화될수록 원천 수용성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규명하고 있다.

셋째, 대화와 협의를 통한 갈등 해결을 강조하는 협상이론은 수용가능한 상생 대안의 모색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수용성과 관련되어 있다. 협상이론은 상생 협상을 위한 조건으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보장, 진정한 이해관계 파악 노력, 공통점의 강조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Lewicki et al., 2001; 하혜수·이달곤, 2017: 68-69), 수용성과 관련성을 갖는다. 먼저, 당사자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해 대화하고 협의할 수 있는 과정의 보장은 수용성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 상대의 진정한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노력은 수용가능한 상생 대안의 도출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상대의 진정한 욕구, 우려사항, 그리고 관심사를 파악하지 않는 한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수용가능한 대안을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공통점을 확인하고 이해관계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합의된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녹여낸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상위 목표의 제시와 같은 이해관계 차이를 최소화한 대안을 개발해야 한다.

협상이론 중에서 원칙협상에 중점을 두는 관점은 상생 대안을 통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는 사람과 이슈의 분리, 이해관계 중심, 객관적 기준의 적용, 그리고 창조적 대안의 개발을 강조한다(Fisher & Ury, 1991; Fisher et al., 1991; 하혜수·석상우, 2019: 29-30). 우선, 원칙협상은 의제와 사람의 분리를 강조한다. 사람에게는 온화하고 유연하되 이슈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완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감정적 요소의 최소화와 관계된다. 그 다음, 원칙협상은 이해관계에 초점을 둔다. 당사자들은 자신과 상대의 요구나 입장보다는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이해관계나 근본적인 관심사를 증시한다. 아울러, 원칙협상은 객관적 기준을 증시한다. 당사자의 상충되는 이해관계의 조정에 있어서 과학적 판단, 전례, 시장가격, 전문 직업적 기준, 관습 등을 적용한다(Fisher & Ury, 1991; 이달곤, 1995). 객관적 기준을 사용하여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면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칙협상은 창조적 대안이 수용성을 완성한다고 주장한다. 진정한 욕구나 이해관계에 초점을 두고 당사자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의 창출은 합의 가능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한(恨)의 관점은 가슴에 쌓인 응어리를 해소하는 것이 수용성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한의 관점에 따르면, 한과 응어리는 한국인 특유의 감정 또는 한국 문화의 핵심 요소(Min, 2008: 128)로 간주된다. 한이란 억압되고 축적된 분노에 대한 한국인의 전통적·문화적·집단적 감정 상태라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국내외적 불공평과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반복되는 고통을 감내해왔다. 보통의 국민, 농민, 그리고 하층민들은 관료 또는 상층민(양반)에 의해 억압을 받았고, 특히 여성들은 남성들로부터 억압과 착취를 당했다. 이러한 억압과 착취에 의해 가슴에 한이 쌓이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과 수용거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한국의 역사는 한의 역사이고, 한국의 문화는 한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민족이 한을 가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고은, 1988; 오영희, 1995: 74; 최상진, 1991), 대체로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구분된다. 우선, 외적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부당하고 험난한 상황이 많았다는 것이다. 지배층에 의한 억압과 착취, 외세 침략과 일제 식민지, 오랜 빈곤 등에 의해 체념과 비애의 감정이 쌓였다는 것이다. 그 다음, 내적으로 우리나라는 부당하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수동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한을 일시적으로 피해가는 수동적인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가슴 속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한은 한국인의 특수 질병인 화병과도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응어리진 한이 화병으로 연결되고(김성환, 2015: 17), 가슴에 한이 쌓이고 배신감, 증오심, 분노감이 내면화되어 감수 속에 응어리 형태로 굳어지면 억울, 허무, 무력, 좌절감을 표출한다는 것이다(김종우 외, 2004). 민성길 외(1990)는 화병과 한의 관련성을 알려주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화병 환자의 85.6%에서 한이 발견되었고, 80.1%의 환자들이 병의 원인을 한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사회생활에서 화, 부정적 감정, 그리고 스트레스가 반복되면 그것들이 쌓이고 단단해져 울화가 되고, 명치 부위에 덩어리가 생기게 된다(Min, 2008: 127). Park et al.(2002)은 사례연구를 통해 화병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간 관계를 구조화하고 있다. 즉 전통적 가치에 대한 집착, 급한 성격, 부부갈등, 고된 생활, 그리고 깊은 슬픔(한)이 좌절감을 초래하고 이러한 좌절감이 지속되면 분노감으로 연결되고 중국에는 화병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가슴에 쌓인 한은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 한이 한국인들에게 경제발전(빈곤의 한풀이)과 민주화(정치적 억압의 한풀이)를 위한 에너지를 제공했다고 주장되지만 공공정책의 추진에서는 불신과 수용거부 그리고 저항적 태도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은 화병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가슴에 쌓인 분노, 좌절, 울분 등을 의미하고, 한이 쌓여 가슴에 응어리진 사람들은 공공정책에 대해 불신, 비선호, 저항적 태도를 보이는 등 매우 낮은 수용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2. 선행연구 검토

공공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원전과 방폐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거나 중요도를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주류적 선행연구들은 원전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요인으로 신뢰성, 이해관계(편익, 효용, 경제효과, 혜택), 안전성(위험성, 위험인지)을 중시하고 있다(Sjöberg, 2004; Bronfman et al., 2009; Tanaka, 2004; Slovic et al., 2000; 정정화, 2015; 송해룡·김원제, 2012; 한장희·고영희, 2013; 신윤창·안치순, 2009). 이들 세 가지 요인을 중시하는 연구 중에서도 심준섭(2009)은 신뢰를 독립변수로, 인식된 위험과 인식된 혜택을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있다.

일부 연구들은 3가지 요인(신뢰성, 이해관계, 안전성)에 새로운 요인을 추가하거나 3가지 요인 중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 있다. 오미영 외(2007)는 신뢰도와 효용성에 더하여 위험특성과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고 있고, 김주경 외(2014)는 신뢰성을 제외하고 경제적 편익과 안전성 그리고 원자력 필요성을 중시하고 있다. 이민재 외(2014)는 위험인식과 효용인식 그리고 투명성을 독립변수로, 신뢰성을 매개변수로 고려하고 있다. 김영곤 외(2015)는 신뢰와 위험(또는 안전)에 더하여 지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은 외(2007)는 합리성(지식정도와 위험통제가능성), 감정(경험과 위험인지), 신뢰(공개성과 진실성)에 더하여 의사소통(과학자집단과 대중매체의 역할)을 설정하고 AHP를 통해 이들간의 중요도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도 신뢰성, 이해관계, 안전성 등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극히 일부이지만 신뢰성, 이해관계, 안전성을 기조로 하지 않은 선행연구들도 발견된다. 프레임을 중시하는 연구, 가치와 신념을 중시하는 연구, 그리고 정책적 요인을 중시하는 연구들이다. Stern(2000)은 VBN 이론을 통해 가치(이기주의, 이타주의, 생태중심주의), 신념(세계관, 책임감), 규범(도덕적 의무감)의 순차적 인과관계에 의해 수용성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최용선·김서용(2015)은 VBN 모형의 적용을 통해 에너지 수요-공급정책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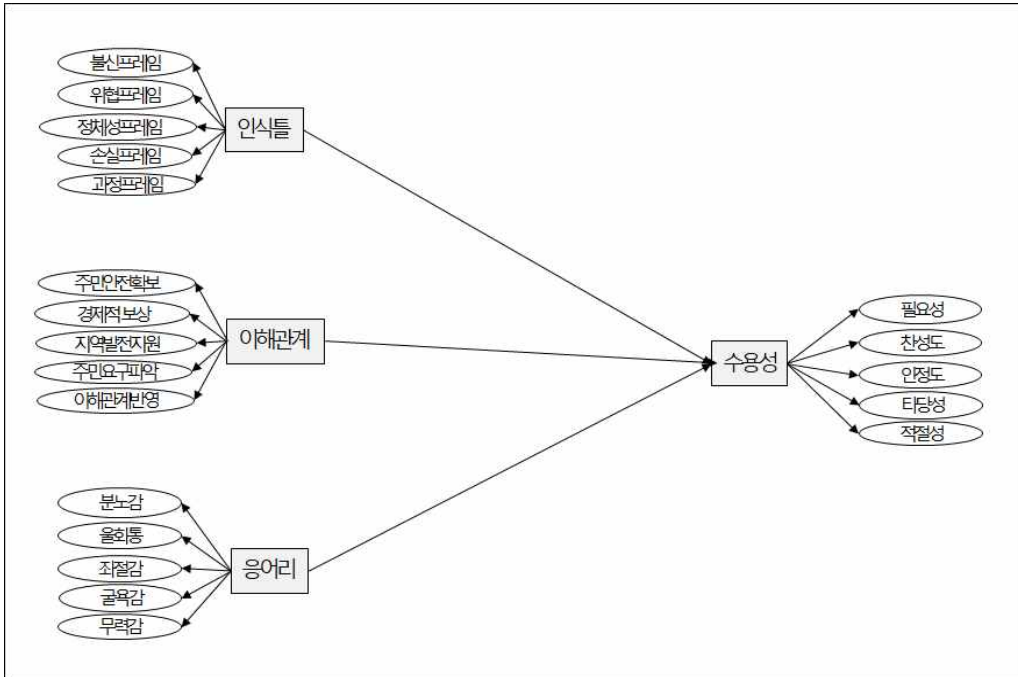
신념, 개인적 규범이 에너지 정책 수용성에 미치는 연쇄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있다. Flynn et al.(1992)은 신뢰성과 경제적 효과(독립변수)에 더하여 낙인효과(매개변수)를 중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낙인효과를 인식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심준섭·김지수(2015)는 원전 반경 5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프레임 유형(투명성, 특징 부여, 정체성, 손익, 위협 등)이 원전 수용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최연홍·오영민(2005)은 정책요인(소망성, 일관성, 명확성), 정책과정요인(투명성, 민주성 등), 정책집행자 요인(신뢰성), 정책대상자 요인(신념, 위협인지) 등을 중시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용성 결정요인 탐색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신뢰성, 이해관계, 안정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3개 요인 중 하나가 제외되거나 의사소통, 필요성, 지식, 투명성 등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극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인식틀(프레임)과 신념 체계 그리고 정책요인 등을 중시한 연구들이 발견된다(심준섭·김지수, 2015; 최연홍·오영민, 2005). 그리고 감정적 요인을 중시한 연구는 경험적 감정을 언급한 김서용·김근식(2007)의 연구와 부정적 감정을 제시한 왕재선·김서용(201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한국문화의 특수성에 해당되는 가슴의 응어리나 한과 같은 요인을 강조한 연구는 하혜수·석상우(2019)를 들 수 있지만 협상결과에 미친 질적 분석에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심준섭·김지수(2015)의 연구에서 나타난 인식틀이나 최연홍·오영민(2005)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념체계도 인지적 측면과 관련된 것으로서 정서적 측면이나 가슴에 쌓인 울분이나 응어리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신뢰성과 이해관계(경제적 편익과 안전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간주)뿐만 아니라 가슴에 쌓인 응어리 요인을 강조하는 본 연구는 한국적 특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의 확장 가능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 3. 분석모형과 변수조작화

#### 1) 분석모형

수용성 결정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그리고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드 배치의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모형을 설정하였다. 다음 <그림 1>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도식화한 분석모형이다.



〈그림 1〉 분석모형 도식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인식틀, 이해관계, 응어리(가슴의 한)이다. 인식틀은 프레임이론에서 강조하는 정체성, 준거점, 그리고 특성화 등과 관련되어 있고 VBN 이론에서 강조하는 개인적 신념과 관련성을 갖는다. 이해관계는 VBN 이론에서 강조하는 가치 등과 일부 관련되어 있고, 대다수 선행연구에서 이익, 효용, 인지된 편익, 인지된 위험 등과 관련되어 있다. 가슴의 한(응어리)은 한국적 문화에서 특유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선행연구에서 강조되는 분노, 울분, 좌절감 등을 포함한다.

## 2)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분석모형에 있어서 종속변수는 수용성(acceptability)이다. 수용성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능력 또는 의지”라고 할 수 있다. 공공수용성(public acceptance)은 특정 시점에 있어서 특정 문제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서 격려, 확인, 승인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나 행동으로 표현된다(Cohen et al., 2014; Kraeusel & Most, 2012). 사회학적 관점의 수용은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와 집단 및 개인의 수동적 동의 또는 긍정적 참여를 통해 광범위하게 나타내는 인지도 또는 수용성을 의미한다(Williams & Mills, 1986; Sauter & Watson, 2007). 경제학적 관점의 수용은 대상자가 가능한 한 기대되는 편익과 소요되는 비용 간의 비교를 통해 편익이 높은 쪽을 받아들이는 정도이다(Sokolowska & Tyszka, 1995; Wildavsky &

Dake, 1990). 그에 따라 공공수용성은 특정한 정책 또는 구체적인 조치들이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 명시적·암묵적으로 지지되는 정도를 의미한다(Kalantari et al., 2018: 7; Wüstenhagen et al., 2007). 따라서 수용성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 정책에 대한 찬성도, 가치의 수용성, 그리고 정책의 타당성과 과정의 적절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분석모형에서 독립변수는 인식틀, 이해관계, 응어리 등이다. 첫째, 인식틀이다. 인식틀은 복잡한 현상을 감지, 인식, 이해하기 위한 감각장치(sensemaking) 또는 인지장치로 정의된다(Gray, 1997; Kahneman & Tversky, 1979; 심준섭·김지수, 2010; 나태준, 2006; 주경일 외, 2003). 개인과 집단이 현실을 감지, 소통, 조직화하는 개념틀이나 이론적 관점(theoretical perspective)으로 볼 수 있다. 사람들은 각자 고유한 렌즈, 도식(schema) 또는 심리적 여과장치(mental filters)를 통해 갈등의제, 이슈들간 연관성, 이슈의 우선순위, 그리고 선택에 포함된 기회와 위험에 대하여 지각하고 이해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지적 여과장치가 프레임 또는 개념적 프레임이다(Kaufman et al., 2003).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식틀은 넓게 보면 특성화 프레임, 정체성 프레임, 준거틀 프레임, 안전 프레임, 그리고 과정 프레임을 포함한다. 상대를 불신하는 인식틀 하에서는 상대의 주장에 대하여 수용하지 못할 것이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폄하하는 상대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못하거나 저항적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이익(안전)보다는 손실(위협)로 인식하는 프레임 하에서는 수용도가 낮을 것이고, 과정 프레임 하에서는 의견수렴 절차가 수용성을 높일 것이다.

둘째, 이해관계(interest)는 어떤 이슈에 대한 요구(주장)를 통해 얻고자 하는 이익과 피하고자 하는 손실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특정한 입장을 취하게 만드는 무형적인 동기, 즉 욕구, 소망, 관심사, 공포, 그리고 열망 등을 의미한다(Ury, 1993: 17). 사드 배치에서는 지역주민이 입지, 전자파, 사전협의 등과 같은 이슈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경제적 편익과 피하고자 하는 손실을 의미한다. 주민들은 사드 입지에 의한 군사적 타격과 지가 하락 등 지역의 피해를 줄이고 싶어 하고, 전자파에 의한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줄이고자 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사전 협의를 통해 주민의 참여감을 높이고, 주민과 지역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는 눈에 보이는 경제적 이득과 효용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과 불안 해소 등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셋째, 한(恨)은 한국인에게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으로 그에 대한 개념 정의가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다수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그 개념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 김성환(2015: 16)은 한을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며, 이러한 분노와 억압에 의해 나타나는 울화통, 가슴앓이, 답답함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한다. Min(2008: 127)은 한을 복합적이고 부정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즉 한은 증오감 및 복수심과 함께 후회, 슬픔, 좌절감 등을 포함하며, 개인적·집단적 트라우마, 욕구불만, 억눌린 분노감, 억울과 분노의 결과로 나타난



다고 한다. 한이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분노, 적대감, 억울함 등 외부로 향하는 공격적 감정뿐만 아니라 무력감, 비애, 허무, 탄식 등 내부로 향하는 체념적 감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한다(오영희, 1995: 73; 이희승, 1994). 이러한 관점에서 응어리를 가슴에 쌓인 한에 의해 나타나는 분노, 울화, 좌절감, 굴욕감, 무력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개념의 조작적 정의와 선행연구의 적용례를 참조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다음 표는 설문의 내용과 선행연구의 사용례를 나타낸 것이다.

〈표 1〉 변수 측정을 위한 설문구성

구분	설문 내용	적용사례	
독립 변수	인식들	사드배치를 추진하는 중앙정부를 믿지 않는다	Tanaka(2004), Bronfman et al. (2009), 심준섭·김지수(2015), 심준섭(2009)
		사드배치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주민의 자존심을 훼손하였다	
		지역의 발전보다는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해관계	주민의 안전확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	Slovic et al. (2000), Flynn et al. (1992), 김주경 외(2014), 한창희·고영희(2012)
		지역피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불충분하다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이 부족하다	
		주민의 요구파악 노력이 부족하였다	
		주민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응어리	사드배치를 보면서 분노가 치민다	김서용·김근식(2007), 왕재선·김서용(2013)
		사드배치를 보면서 울화통이 터졌다	
		사드배치를 보면서 좌절감이 들었다	
		사드배치를 보면서 굴욕감을 느꼈다	
		사드배치를 보면서 무력감을 느꼈다	
종속 변수	수용성	안보를 위해 사드배치가 필요하다	Xianglong et al.(2016), De Groot et al.(2013), 심준섭·김지수(2015)
		중앙정부의 사드배치 정책에 찬성한다	
		사드의 성주 배치를 받아들인다	
		사드배치 정책결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사드배치의 추진과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인식들에 관한 질문은 사드배치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정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신뢰, 안전위협, 자존심 훼손, 손실 초래, 의견수렴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인식들에 관한 직접적 적용사례는 심준섭·김지수(2015)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투명성, 특징부여(정부), 특징부여(한수원), 정체성, 손익, 위협 등 6가지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Tanaka(2004), Bronfman et al.(2009), 심준섭(2009) 등의 경우 신뢰성과 위협인식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것도 인식들과 관련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등을 참조하고 인식들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항목은 신뢰(선행연구의 특징부여 프레임 및 신뢰성과 관련), 안전위협(선행연구의 위협프레임), 자존심 훼손(선행연구의 정체성 프레임), 손실초래(선행연구의 손익프레임), 의견수렴(선행연구의 과정프레임 및 투명성과 관련)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해관계에 관한 질문은 사드배치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정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안전 확보, 경제적 보상, 지원사업, 주민요구 파악노력, 이해관계 반영 등 5가지 항목을 포함하였다. 선행연구에서 Slovic et al.(2000)은 인식된 편익과 인식된 위협으로 측정하고 있고, Flynn et al.(1992)은 경제적 효과를 사용하고 있으며, 신윤창·안치순(2009)은 위험성과 편익성을 적용하였으며, 김주경 외(2014)는 필요성, 안전성, 경제적 편익을 사용하였으며, 한창희·고영희(2012)는 지역공동체 경영, 경제적 혜택 인식도, 위험인식 등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점을 참조하여 이해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항목은 안전확보(선행연구에서 안전성 및 인식된 위협과 관련), 경제적 보상(선행연구에서 인식된 편익 및 경제적 효과와 관련), 지원사업(지역공동체 경영과 관련), 그리고 주민요구 파악노력과 실제 반영도(선행연구에서 경제적 편익 및 인식된 편익과 관련) 등을 사용하였다.

응어리(한)에 관한 질문은 기존연구의 개념 정의를 참조하여 분노, 울화통, 좌절감, 굴욕감, 무력감 등 5가지 항목을 포함하였다. 선행연구의 경우 김서용·김근식(2007)의 경험적 감정, 왕재선·김서용(2013)의 부정적 감정, 그리고 Flynn et al.(1992)의 낙인효과 등이 일부 관련성이 있지만 응어리를 직접 측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에 따라 응어리 수준의 측정을 위한 설문 문항은 한의 관점에 관한 선행연구의 정의를 참조하여 축적된 한에 의해 발현되는 분노감, 울화통, 좌절감, 굴욕감, 무력감 등을 사용하였다.

수용성에 관한 질문은 사드배치 필요성, 배치정책 찬성, 성주 배치 수용, 정책결정 타당성, 추진과정 적절성 등 5가지로 구성하였다. 선행연구 중에서 De Groot et al.(2013)은 원자력 에너지 정책의 수용성, 원전발전소 입지 수용성, 미래 원자력 증대정책에 대한 수용성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Xianglong et al.(2016)은 수용성을 개인적 불편, 선호, 동의의 3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심준섭·김지수(2015)는 수용성에 대하여 반대와 필요성 2가지 질문으로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사드배치 필요성(선행연구의 선호 및 필요성과 관련), 사드정책 찬성(선행연구의 동의 및 반대와 관련), 성주 배치 수용(선행연구의 입지 수용성 등과 관련), 정책결정의 타당성과 추진과정의 적절성(선행연구의 정책요인 및 정책과정요인과 관련) 등을 사용하였다.

### III. 사드 배치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 1. 조사설계

사드 배치의 수용성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성주군 10개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성주 군민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pre-test)를 실시하여 설문 문항의 적정성과 응답의 용이성을 점검하였다. 본 조사는 2020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실시하였고, 설문지는 총 350부를 배포하여 불성실하게 응답한 40부를 제외하고 310부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주민의 특성을 보면, 성별은 남 193명과 여 117명으로 남자가 조금 많고, 연령별로는 농촌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50세 이상 168명(54.2%)과 40-50세 미만 99명(31.9%)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로는 고졸이 124명(40.0%)이고 대졸이 96명(31.0%)이며, 읍면별로는 비슷하지만 금수면·대가면·선남면이 42명(13.5%)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 2. 요인분석

인식틀(부정적 인식틀), 이해관계(손실측면), 응어리 등이 사드 배치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분석에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목적은 첫째, 수용성 이론과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요인들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고, 둘째, 요인에 적재된 변수들의 타당성, 특히 새롭게 구성된 응어리 요인을 구성하는 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며, 셋째, 종속변수인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세부 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수용성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수용성 요인과 인식틀, 이해관계, 응어리 등 3개 요인을 도출하였으므로 4개의 요인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수(요인)간 관계 및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 관계 검증에 활용되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명	항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응어리	응어리3	.842	-.293	.213	.225
	응어리2	.830	-.280	.278	.219
	응어리1	.825	-.264	.260	.276
	응어리5	.825	-.310	.257	.189
	응어리4	.823	-.288	.236	.237

수용성	수용2	-.203	.888	-.081	-.175
	수용4	-.242	.866	-.154	-.128
	수용3	-.236	.861	-.168	-.130
	수용1	-.193	.834	.020	-.333
	수용5	-.336	.792	-.222	.153
손실측면 이해관계	이해관계2	.140	-.052	.828	.113
	이해관계5	.320	-.187	.825	.069
	이해관계4	.268	-.166	.825	.160
부정적 인식들	인식들4	.460	-.278	.204	.691
	인식들2	.443	-.276	.126	.661
	인식들1	.455	-.055	.376	.525
아이겐 값		4.649	4.239	2.666	1.698
분산(%)		29.1	26.5	16.7	10.6
누적분산(%)		29.1	55.5	72.2	82.8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어리, 수용성, 손실측면의 이해관계, 부정적 인식들의 4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응어리와 수용성에는 각각 5가지 변수가 적재되었으며, 손실측면의 이해관계와 부정적 인식들에는 각각 3가지 변수만 적재되었다. 손실측면 이해관계의 2개 변수(주민안전 확보, 주민요구 파악노력)와 부정적 인식들의 2개 변수(주민안전 위협, 의견수렴과정)는 요인적재치가 낮아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민들의 인식상 안전확보를 경제적 이해관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해관계 반영과 이해관계 파악노력을 구분하지 않으며, 주민안전 위협과 자존심 훼손의 구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으며, 그리고 과정프레임(의견수렴)보다 신뢰프레임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은 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응어리, 수용성, 손실측면의 이해관계, 부정적 인식들의 아이겐 값은 각각 4.649, 4.239, 2.666, 1.698로 기준 값이 모두 1을 상회하고, 4개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총분산 설명이 82.8%로 나타나 요인분석 결과가 타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델의 적합도를 보면, 절대적합도 지수의 경우  $\chi^2$ 값은 216.946(df=94, p=.000)으로 기준치에 미달하였으나  $\chi^2$ 값의 대응치로 활용되는 Q값이 2.308로 나타나 기준에 부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GFI는 .920, RMSEA는 .065, RMR는 .037로 나타나 적합도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다. 증분적합지수의 경우 NFI는 .957, CFI는 .975, TLI는 .968로 나타났고, 간명적합지수의 경우 PNFI는 .750, PCFI는 .764로 나타났다. 이러한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집중타당성(수렴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먼저, 집중타당성 검증은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의 요인부하량을 확인하여 잠재변수와 관측변수들의 일치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다음 <표 3>은 집중타당성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3〉 집중타당성 분석 결과

구분	변수	분산(variance)	비표준화 $\lambda$	평균분산추출(AVE)	개념신뢰도(CR)
인식틀	인식틀1	0.285	0.032	.794	.911
	인식틀2	0.252	0.033		
	인식틀4	0.540	0.048		
응어리	응어리1	0.139	0.016	.583	.875
	응어리2	0.138	0.014		
	응어리3	0.152	0.016		
	응어리4	0.151	0.015		
	응어리5	0.149	0.015		
이해관계	이해관계2	0.429	0.273	.744	.897
	이해관계4	0.152	0.260		
	이해관계5	0.122	0.288		
수용성	수용성1	0.346	0.034	.724	.925
	수용성2	0.231	0.026		
	수용성3	0.216	0.026		
	수용성4	0.175	0.021		
	수용성5	0.343	0.033		

집중타당성은 평균분산추출(AVE)이 0.5 이상, 개념신뢰도(CR)가 0.7 이상,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0.5 이상이고, 요인부하량에 대한 유의성이 1.965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한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변수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0.7 이상이고(〈표 2〉 참조),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분산추출(AVE)은 모두 0.5 이상이며, 개념신뢰도(CR)는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 유의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판별타당성은 서로 다른 잠재변수 간 차이를 검증하는 것으로서 다음 세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첫째, 잠재변수의 AVE가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크면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AVE > \varphi^2$  이 된다. 둘째,  $[\varphi \pm 2 \times S.E.]$ 가 1.0을 포함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셋째, 비제약모델과 제약모델간의  $X^2$  차이가 유의적 ( $X^2 = 3.84$  이상)으로 나타나면 두 개념 간에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우종필, 2012: 171). 여기서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여 판별타당성을 검증하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각선에 제시된 AVE의 제곱근 값이 상관계수 값을 상회하고 있어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평균분산추출(AVE) 제곱근 값은 0.764~0.891이고,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값( $\varphi$ )은 -.506~0.675로 나타나 모든 잠재변수의 평균분산추출 제곱근 값이 각각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4〉 변수의 상관관계 및 판별타당성

변수명	인식틀	응어리	이해관계	수용성
인식틀	.891			
응어리	.675	.764		
이해관계	.283	.355	.863	
수용성	-.415	-.506	-.224	.851

\* 대각선 값은 AVE값의 제곱근 값

### 3. 구조방정식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에 앞서 수용성, 이해관계(손실측면), 인식틀(부정적 인식틀), 응어리 등 4개 요인의 기술통계량과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4개 요인의 기술통계량과 요인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구분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1	2	3	4
1	인식틀	2.81	0.86	1			
2	응어리	2.92	0.95	.809**	1		
3	이해관계	3.32	0.74	.527**	.567**	1	
4	수용성	2.26	0.94	-.514**	-.591**	-.355**	1

\* p<.05, \*\* p<.01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해관계의 평균값이 3.32로 가장 크고, 응어리가 그 다음으로 2.92이며, 수용성의 평균값은 2.26으로 가장 작다. 상관관계를 보면, 인식틀(부정적 인식틀)과 응어리간 상관관계가 가장 높고, 수용성과 이해관계(손실측면)의 상관관계가 가장 낮다. 인식틀(부정적 인식틀), 응어리, 이해관계(손실측면) 모두 수용성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부정적 인식틀과 응어리간 상관관계가 0.809로 매우 높게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슴의 한(응어리)이 부정적 인식틀에 영향을 주었는지 아니면 부정적 인식틀이 가슴의 한에 의해 증폭되었는지는 규명해야 할 과제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들 관계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지 못하였다. 부정적 인식틀과 손실 측면이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구조에서 가슴의 한(응어리) 요인이 매개 변수 또는 조절변수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규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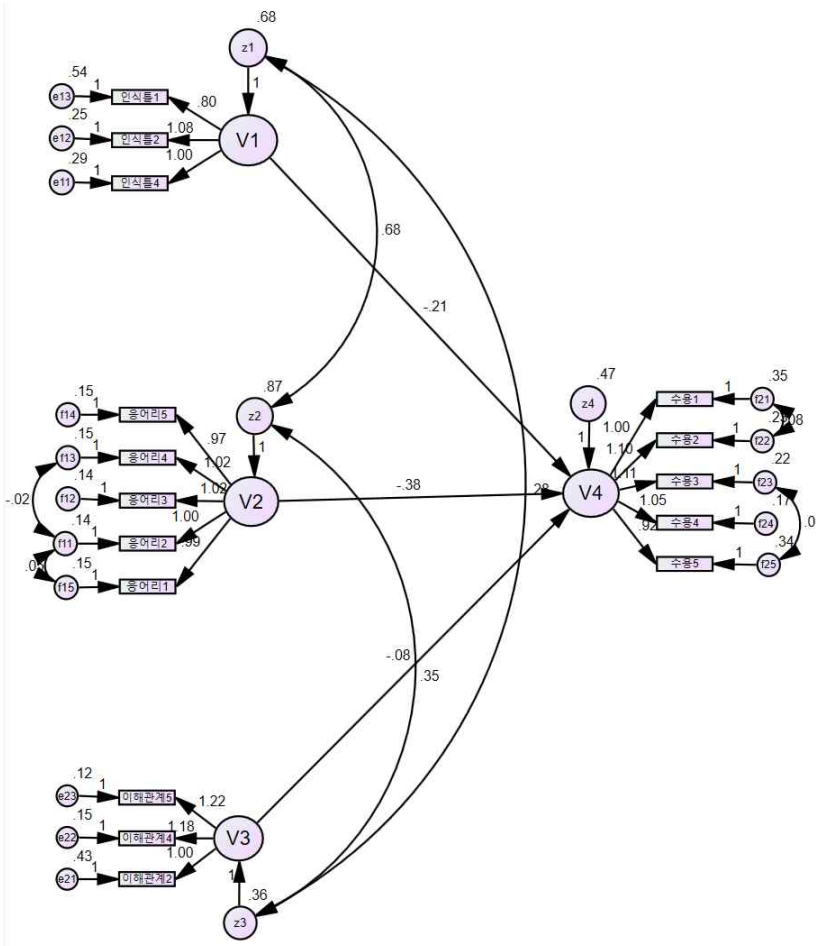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수용성에 미치는 요인의 경로계수를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회귀분석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가정들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고, 이러한 가정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를 줄여 보다 정확한 결과를 추정할 수 있으며, 그리고 통제변수를 내재화하여 제3의 변수에 의한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혜수 외, 2015: 13). 먼저, 사드 배치의 수용성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사드 배치 수용성의 적합도 검증 결과

적합도	카이제곱	df	p	GFI	NFI	CFI	TLI	RMSEA
모형	216.946	94	.000	.920	.957	.975	.968	.065
적합도의 기준	p>0.05			0.9 이상				0.05 이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를 평가하는 카이제곱 통계량은 모형이 모집단 자료에 완전하게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을 검증한다. 카이제곱 통계량이 216.946이고 유의확률이 0.000으로 적합도 기준  $p>0.05$ 를 충족하지 못하여 적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카이제곱은 표본의 크기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인 CFI, TLI, RMSEA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GFI, NFI, CFI, TLI의 적합도 기준은 모두 0.9 이상으로 나타났고, RMSEA 적합도 기준은 0.065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는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드 배치 수용성 결정요인에 관한 구조방정식 분석결과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수용성 결정요인에 관한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V1는 부정적 인식들의 구성개념을 나타내는 잠재변수, V2는 응어리의 구성개념을 나타내는 잠재변수, V3는 손실측면 이해관계의 구성개념을 나타내는 잠재변수, V4는 수용성의 구성개념을 나타내는 잠재변수를 의미한다. 첫째, 응어리는 다섯 가지 잠재변수로 구성되며, 수용성에 가장 높은 부(-)의 영향력(-.38)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민들이 사드 배치에 대하여 분노, 울분, 좌절 등을 인식할수록 사드 배치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부정적 인식들은 세 가지 잠재변수로 구성되며, 수용성에 차순위로 높은 부(-)의 영향력(-.21)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자신과 지역의 정체성을 훼손한다고 인식할수록 사드 배치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손실측면의 이해관계는 세 가지 잠재변수로 구성되며, 수용성에 가장 낮은 부(-)의 영향력(-.08)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민들이 경제적 보상이 낮거나 안전성 확보가 불충분하다고 인식할수록 사드 배치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 성주 사드 배치에 대한 수용성은 손실측면의 이해관계와 부정적 인식들보다는 응어리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수용성, 특히 원전 수용성에 대한 주류적 연구는 신뢰성, 이익측면의 이해관계(경제적 보상과 편익인식)와 안전성(안전인식과 위험인식)이 수용성을 결정한다고 주장하였고, 일부에서는 인식틀(프레임)과 감정적 요인이 수용성을 좌우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을 인식틀에 포함시키고, 안전성을 이해관계로 분류한 다음 한국적 문화에 특유한 응어리(가슴의 한)를 새로운 독립변수로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 응어리가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이었고, 인식틀과 이해관계는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드 배치와 같은 국책사업의 경우 이해관계의 충족과 인식틀의 전환과 같은 노력에 더하여 지역주민들의 가슴에 쌓여있는 한과 응어리를 해소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역사적·문화적 요인에 의해 가슴에 누적되어온 응어리(가슴의 한)의 발현이 중앙정부의 사드배치 정책에 대한 불신에 의한 것인지, 사드배치의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자존심 훼손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규명될 필요가 있다. 응어리가 부정적 인식틀(프레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은 상관관계 분석결과 두 요인간 상관관계가 0.809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다만 응어리에 대한 이론과 연구는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응어리가 수용성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에 관한 이론 역시 미흡한 상황에서 응어리 요인이 부정적 인식틀과 이해관계가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 또는 조절하는 요인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인식틀과 손실측면의 이해관계가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응어리 요인을 추가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 이후 응어리 요인이 부정적 인식틀과 이해관계가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 또는 매개하는 요인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이론적 측면에서 수용성 이론의 정교화에 기여할 것이고, 정책적 측면에서도



단순히 응어리 요인을 증시해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정적 인식들 증정부신뢰에서 비롯되는 응어리 발현측면, 주민정체성 훼손에서 비롯되는 응어리 발현측면, 그리고 과정프레임에서 비롯되는 응어리 발현측면 등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IV. 결 론

지금까지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격렬한 대립과 분쟁을 경험한 성주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드 배치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각 요인의 영향력을 측정하였다. 우선 가치·신념·규범(VBN 이론), 인식들 이론, 협상이론, 그리고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310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특히 한국적 특수성인 응어리(가슴의 한)의 경우 역사적·문화적으로 정부의 수탈과 착취로부터 가슴에 쌓인 응어리(한과 울분)는 불신이나 정체성 훼손 등과 결합하여 과 국가안보적으로 중요한 사드 배치에 대한 수용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분석 결과 손실측면의 이해관계, 부정적 인식들, 응어리의 3가지 요인이 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즉 주민들이 사드 배치로 인해 경제적 보상과 안전 확보가 불충분하다고 인식할수록, 사드 배치에 따른 정부 신뢰 부족과 자존심 저하를 인식할수록, 그리고 사드 배치로 인해 울분, 분노, 좌절, 무력감 등을 인식할수록 사드 배치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세 가지 요인 중에서는 가슴에 쌓인 울분과 응어리가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손익이나 정부 신뢰보다는 가슴에 쌓인 울분과 분노를 인식할수록 사드 배치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 이론적 함의와 실천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기존의 연구들은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치, 신념, 이해관계, 신뢰성, 인식들, 감정적 요인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노와 울화 등과 같은 응어리(가슴의 한) 요인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서구 중심의 수용성 이론에서 한국적 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한 이론의 확장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즉 한국의 역사와 문화적 특수성인 가슴의 응어리가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천적 관점에서 국책사업의 추진에서 주로 경제적 보상, 신뢰 확보, 그리고 안전성 확보를 중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보다 응어리 해소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규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원전과 사드의 배치로 인한 지역의 피해를 보상하거나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 못지않게 주민들의 분노, 울화, 좌절 등과 같은 응어리를 해소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고은. (1988). 한의 극복을 위하여. 서광선 편. 「한의 이야기」, 서울: 보리.
- 김서용·김근식. (2014).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인의 수용성 태도변화 분석. 「한국행정학보」, 23(3): 57-89.
- 김성환. (2015). 화병(Hwa-byung)에 관한 목회상담적 소고 -정신의학적 조망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23(1): 11-45.
- 김영곤·김주경·최일환. (2015). 원자력 갈등해결을 위한 수용성 확보에 관한 연구: 수용성 측정 지표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13(2): 41-76.
- 김영완·김영진. (2015). 비폭력 대화의 구성 4요소로 살펴본 전통의학적 火病 치유 -대화를 통한 치유의 콘텐츠-. *Journal of Korean Culture*, 29: 217-240.
- 김중우·권정혜·이민수·박동진. (2004). 화병 진단 면담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9: 321-331.
- 김주경·고대유·김영곤·하종성. (2014). 원자력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한·미 원자력 협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10(3): 1-24.
- 나태준. (2006). 정책 인식 프레임링 접근방법에 따른 갈등의 분석: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4): 297-325.
- 민성길·남궁기·이호영. (1990). 화병에 관한 일역학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29: 867-874.
- 민성길. (1991). 화병과 한. 「대한의학협회지」, 34: 1189-1198.
- 송지준. (2011). 「논문 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21세기사.
- 송해룡·김원제. (2013).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공중의 신뢰, 낙인과 낙관적 편향성이 위험인식에 미치는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13(3): 162-173.
- 신윤창·안치순. (2009).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3): 189-211.
- 심준섭. (2009).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신뢰, 인식된 위험과 혜택, 그리고 수용성. 「한국정책학회보」, 18(4): 93-123.
- 심준섭·김지수. (2015). 갈등 프레임이 원전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의 탐색적 분석: PLS 구조방정식 모형의 활용.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5(4): 1-28.
- 심준섭·김지수. (2010). 갈등 당사자의 프레임과 프레임링 변화과정 분석: 청주시 화장장 유치 사례. 「행정논총」, 48(4): 229-261.
- 오미영·최진명·김학수. (2008). 위험을 수반한 과학기술의 낙인효과. 「한국언론학보」, 52(1): 467-500.
- 오영희. (1995). 용서를 통한 恨의 치유: 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7(1): 70-94.
- 왕재선·김서용. (2013).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수용성 및 인식구조 변화에 대한 탐색적

- 분석. 「한국행정학보」, 47(2): 395-424.
-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출판사.
- 이민재·정진섭·박기성. (2014). 원자력 발전의 위험 인식, 효용 인식, 투명성이 사회적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영연구」, 21(4): 253-279.
- 이시형. (1977). 화병(火病)에 관한 연구. 「고려병원잡지」, 1: 63-69.
- 이재은·김영평·정운수. (2007). 발전원 위험의 사회적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한국행정연구」, 16(2): 189-217.
- 정대현. (1988). 한의 개념적 구조. 서광선 편. 「한의 이야기」, 서울: 보리.
- 정정화. (2015). 원전 건설의 주민수용성: 삼척 신규원전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3): 167-199.
- 주경일·최홍석·주재복. (2003). 프레임분석을 통한 수자원 갈등 각 이해집단의 의미구성 이해: 한탄강댐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1(4): 193-221.
- 최상진. (1991). '한'의 사회심리학적 개념화 시도.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 논문초록」, 339-350.
- 최연홍·오영민. (2005). 정책 수용성의 시간적 변화-위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입지 갈등 사례-. 「한국정책학회보」, 13(1): 297-333.
- 최용선·김서용. (2015). 국가경쟁력과 에너지 선택-VBN(Value-Belief-Norm) 모형의 적용을 통한 에너지 수요-공급정책 수용성 인과구조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4(2): 119-147.
- 하혜수·이달곤. (2017). 「협상의 미학: 상생 협상의 이론과 적용」, 서울: 박영사.
- 하혜수·김도현·김수강. (2015).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수준 측정 및 영향요인 분석: 구성원의 주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9(4): 61-86.
- 하혜수·석상우. (2019). 중앙과 지방간 사드 배치 갈등 분석: 협상론적 시각에서. 「지방행정연구」, 33(3): 23-50.
- 한동섭·김형일. (2011).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에 미치는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신뢰성, 효용인식, 위험인식을 매개로. 「한국위기관리논집」, 7(2): 1-22.
- 한 장혁·고영희. (2013). 지역공동체 의식 형성이 지역의 원전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환경정책」, 21(2): 1-34.
- Bronfman, N. C., E. L. Vázquez, & G. Dorantes. (2009). An Empirical Study for the Direct and Indirect Links between Trust in Regulatory Institutions and Acceptability of Hazards. *Safety Science*, 47(5): 686-692.
- Cartell, L., & Harman, A. (1966). The Scree Test for the Number of Factor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1: 245-276.
- Cohen, J. J., J. Reichl, & M. Schmidthaler. (2014). Re-focussing Research Efforts on the Public

- Acceptance of Energy Infrastructure: A Critical Review. *Energy*, 76: 4-9.
- Chong, Dennis., & James N. Druckman. (2007). Framing Theory.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0: 103-126.
- De Groot, I. M. Judith, Linda Steg., & Wouter Poortinga. (2013). Values, Perceived Risks and Benefits, and Acceptability of Nuclear Energy. *Risk Analysis*, 33(2): 307-317.
- Fisher, R. & W. Ury. (1991). *Getting to Yes: Negotiating Agreement without Giving in*. Second Edition, London: Penguin Books.
- Fisher, R., W. Ury., & B. Patton. (1991). *Getting to Yes: Negotiating Agreement without Giving In*. New York: Penguin Books.
- Flynn, J., W. Burns, C. K. Mertz, & P. Slovic. (1992). Trust as a Determinant of Opposition to a High-level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Analysis of a Structural Model. *Risk Analysis*, 12(3): 417-429.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Gray, B. (1997). Framing and Reframing of Intractable Environmental Disputes. *Research on Negotiation in Organizations*, 6: 163-188.
- Hong, S., M. Malik, & M. Lee.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 Kahneman, D. and A. Tversky. (1979).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47: 263-291.
- Kaiser, H. F. (1974). An Index of Factorial Simplicity. *Psychometrika*, 39(1): 31-36.
- Kalantari, Fatemeh, O. M. Tahir, R. A. Joni, & N. A. Aminuldin. (2018). The Importance of the Public Acceptance Theory in Determining the Success of the Vertical Farming Projects. *Management Research and Practice*, 10(1): 5-16.
- Kaufman, S., M. Elliott, and D. Shmueli. (2003). *Frames, Framing and Reframing, Beyond Intractability*. Boulder: Univ. of Colorado.
- Kraeusel, J. & D. Möst. (2012). Carbon Capture and Storage on Its Way to Large-scale Deployment: Social Acceptance and Willingness to Pay in Germany. *Energy Policy*, 49: 642-651.
- Lewicki, R. J., B. Gray, & M. Elliot. (2001). *Making Sense of Intractable Environment Conflict: Frames and Cases*. Washington: Island Press.
- Min, S. K. (1989). A Study of the Concept of Hwabyung. *The Korean Journal of*

-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8: 604-616.
- Min, Sung Kill. (2008). Clinical Correlates of Hwa-Byung and a Proposal for a New Anger Disorder. *Psychiatry Invest*, 5: 125-141.
- Park Young-Joo, Kim Hesook Susie, Schwartz-Barcott Donna, and Kim Jong-Woo. (2002). The Conceptual Structure of Hwa-Byung in Middle-Aged Korean Woman. *Health Care for Woman International*, 23: 389-397.
- Putnam, L. L. & M. Holmer. (1992). Framing, Reframing and Issue Development. L. L. Putnam & M. E. Roloff(eds.). *Communication and Negotiation*. Newbury Park, CA: Sage.
- Roeser, Sabine. (2006). The Role of Emotions in Judging the Moral Acceptability of Risks. *Safety Science*, 44: 689-700.
- Sauter, Raphael & Jim Watson. (2007). Strategies for the Deployment of Micro-generation: Implications for Social Acceptance. *Energy Policy*, 35(50): 2770-2779.
- Sjöberg, L. (2004). The Methodology of Risk Perception Research. *Quality and Quantity*, 34: 407-418.
- Slovic, P., J. Flynn, C. K. Mertz, M. Poumadere, & C. Mays. (2000). Nuclear Power and the Public: A Comparative Study of Risk Perception in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 Renn, O. and B. Rohrman(eds.). *Cross-cultural Risk Perception*. Boston: Kluwer Academic.
- Sokolowska, Joanna & Tadeusz Tyszka. (1995). Perception and Acceptance of 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Risk: Why Poor Countries Less Concerned?. *Risk Analysis*, 15(6): 733-743.
- Stern, P. C. (2000). Towards a Coherent Theory of Environmentally Significant Behavior. *Journal of Social Issues*, 56(3): 407-424.
- Tanaka, Y. (2004). Major Psychological Factors Determining Public Acceptance of the Siting of Nuclear Faciliti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4(6): 1147-1165.
- Wildavsky, Aron & Karl Dake. (1990). Theories of Risk Perception: Who Fears What and Why?.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 119(4): 41-60.
- Williams, Roger & Stephen Mills, eds. (1986). *Public Acceptance of New Technologies: An International Review*. London: Croom Helm.
- Wüstenhagen, R., M. Wolsink, & M. J. Bürer. (2007). Social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Innovation: An Introduction to the Concept. *Energy Policy*, 35(5): 2683-2691.
- Xianglong, Sun, Feng Shumin, & Lu Jian. (2016). Psychological Factors Influencing the

46 「한국지방행정학보」 제18권 제1호

Public Acceptability of Congestion Pricing in China.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F*, 41: 104-112.

접수일(2021년 02월 04일)

수정일(2021년 04월 07일)

게재확정일(2021년 04월 13일)

## 〈국문초록〉

## 사드 배치의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구조방정식모형의 활용

본 연구는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격렬한 대립과 분쟁을 경험한 성주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사드 배치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이론과 선행연구에 입각하여 분석모형을 구성하고 이해관계, 인식틀, 그리고 한국적 특수성인 응어리가 수용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해관계, 인식틀, 응어리의 3가지 요인이 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그 중에서 응어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드 배치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은 지역의 손익이나 정부 신뢰보다 가슴에 쌓인 울분과 분노에 의해 더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 이론적 관점에서 가치, 신념, 이해관계, 신뢰성을 중시하는 서구 중심의 수용성 이론에서 한국문화의 특수성인 응어리를 고려한 이론의 확장 가능성을 시사 받을 수 있다. 그 다음 실천적 관점에서 원전과 사드 배치 등의 국책사업 추진 시 지역의 피해를 보상하거나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 못지않게 주민들의 분노, 울화, 좌절 등과 같은 응어리를 해소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주제어: 사드 배치, 수용성, 응어리, 국책사업

---

**하혜수**(河慧洙: 책임저자)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논문: 지방정부의 정책산출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현재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지방행정, 지방분권, 갈등협상 등이다. 저서로는 「협상의 미학」(공저)과 「지방분권 오디세이」가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우리나라 중앙-지방관계의 분석”(2019), “중소벤처기업정책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2020),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수준은 왜 낮은가: 지방분권가설에 관한 탐색적 연구(2020)” 등이 있다(hasoo@knu.ac.kr).

**석상우**(石錫相宇: 공동저자) 경북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총무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지방자치, 인사행정, 갈등협상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중앙-지방간 사드배치 갈등 분석”(2019)이 있다(ssw4052@hanmail.net).

**우남규**(禹南圭: 공동저자) 경북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전략기획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지방자치, 대학정책, 갈등협상 등이다(woopipwoo@naver.com).